



제51회 한국방송대상 총평

전범수

제51회 한국방송대상 심사위원장, 제36대 한국방송학회장

목차

- 1 들어가며
- 2 수상작 소개
- 3 수상작들로 살펴보는 지상파방송의 미래

요약

제51회 한국방송대상에는 지상파방송을 대표하는 작품 3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글로벌 OTT와 온라인 콘텐츠 유통 창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품질은 굳건해 보인다. 양질의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다큐멘터리 장르만큼은 지상파방송이 자랑하는 콘텐츠 경쟁력의 원천임을 보여준다. 다큐멘터리는 다른 플랫폼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장르로, 앞으로도 지상파방송의 미래를 책임질 한 축이 될 것이다. 드라마와 연예오락 장르는 기존 흐름을 반영한 작품과 새로운 시도로 제작된 작품들이 나름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프로그램 형식에서는 다양한 시도와 변형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앞으로도 혁신과 완결 성으로 지상파방송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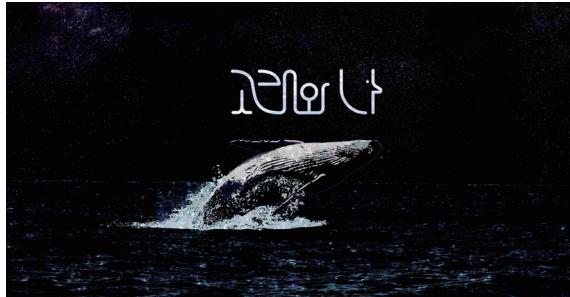
1973년부터 시작된 한국방송대상이 2024년 제51회를 맞이해 새로운 수상작들을 배출했다. 지상파방송을 대표하는 작품 243편, 방송인 63인에 대해 예심과 본심 등을 진행한 결과 대상 1편, 작품상 25개 부문 30편, 개인상 20개 부문 18명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수상작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각 부문에서 작품성이나 혁신성, 현실 반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심사를 통해 여러 플랫폼에서 쏟아져 나오는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경쟁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지상파방송이 시대적 흐름과 트렌드를 반영해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방송대상 본심 과정에서 부문별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일은 호기심과 함께 높은 긴장감으로 치열했던 시간이었다.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거나 완성도 높은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본심에 오른 프로그램들의 기획서와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왜 이 프로그램들이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인가를 다양한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심에만 3일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부문별 수상작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제51회 한국방송대상 수상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2. 수상작 소개

올해 한국방송대상에서 대상 수상작은 SBS 창사특집 <고래와 나> 4부작이다. 2023년 연말에 방송된 4부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고래와 관련된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 고래의 삶에 투영된 환경 문제를 다루었던 대작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접했던 수족관의 고래가 아니라 푸른 바다 깊숙이 자유로운 삶을 살던 고래 이야기이다. 바다 속 고래가 거대한 생명체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8K 카메라로 고스란히 남겼다. 게다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바다와 고래가 직면하는 위기 및 위험의 신호들이 다채로운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그림 1] 대상 <고래와 나>



출처 : SBS

<고래와 나>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어미 향고래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이었다. 가히 이 프로그램의 백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촬영된 희귀한 장면이라 하는데 시청자들에게는 떨림과 감동을 주었던 장면이다. 바닷속 고래의 삶을 촬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제작진은 오랜 준비와 인내, 노력을 통해 제51회 한국방송대상의 대상을 거머쥘 가치가 충분한 프로그램을 남겼다. 대상의 자격이 차고 넘치는 작품이다.

[그림 2] 드라마 부문 공동 수상작 <악귀>와 <연인>



출처 : SBS, MBC

드라마 부문은 두 작품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MBC <연인>과 SBS <악귀>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 작품 모두 작품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두 드라마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달랐다. 드라마 <연인>은 병자호란 시기를 배경으로 연

인들의 사랑, 그리고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다채로운 삶을 그린 작품이었다. <연인>은 시청률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화면 자체가 아름답게 촬영된 수작이었다.

한편, 드라마 <악귀>는 악귀에 쓴 여자 주인공과 악귀를 볼 수 있던 남자 주인공이 미스테리한 죽음을 추적하는 내용의 오컬트 드라마 작품이다. 흔하지 않은 소재와 주인공들의 뛰어난 연기가 결합한 좋은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악귀>는 이번 제51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드라마 TV 부문 작품상, 작가상, 최우수연기자상 등 3관왕에 오른 작품이다. <연인>이 전 연령대가 좋아하는 역사 드라마였다면 <악귀>는 오컬트라는 새로운 장르로 젊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연예오락 TV 부문 수상작 <골든걸스>,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2>



출처 : KBS, MBC

연예오락 TV 부문에서는 KBS <골든걸스>와 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2>가 수상했다. <골든걸스>는 국내 실력파 여자 가수 4인이 JYP 소속 박진영 프로듀서와 같이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이다. 이미 정상에 올랐던 가수들이 중년의 나이에 음악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채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흥미롭게 펼쳐졌다. 젊은 연령대 가수들로 구성된 걸그룹 중심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었다.

한편,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2>는 가장 독특한 개성을 가진 연예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기안84의 세계일주 배낭여행 프로그램이다. 준비도 없이 무작정 여행 오지들을 찾아다니며 겪게 되는 좌충우돌 여행 프로그램이다. 시즌1에서는 중남미 지역을 다루었던 반면에 시즌2는 기안84가 인도를 찾아가며 경험하는 여행 일정들이 펼쳐졌다. 기안84를 포함

해 텍스와 빠니보틀이 출연했다. 기존 여행 오락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기획과 엉뚱하고 기발한 전개 과정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은 화제작이다.

[그림 4] 연예오락 라디오 부문 수상작
〈4시엔 윤도현입니다〉 '애들아 놀자' 코너



출처 : MBC

연예오락 라디오 부문은 MBC <4시엔 윤도현입니다> '애들아 놀자' 코너가 수상했다. 가수이자 라디오 프로그램 DJ인 윤도현 씨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과 직접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진행을 선보인 새롭고 독특한 코너 프로그램이다.

[그림 5] 뉴미디어 예능 부문 수상작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시사교양 부문 수상작 〈첫문장〉



출처 : EBS, MBC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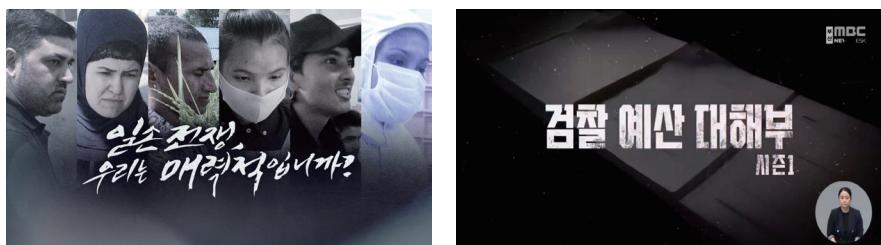
뉴미디어 예능 부문은 EBS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이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여행 크리에이터로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곽준빈이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현지인 시각으로 로컬 맛집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이다. 여행 유튜브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곽

준빈이 세계 여러 나라 기사식당을 찾는다는 주제가 신선한 느낌이었다. 게다가 자유로운 면에서도 현지 적응력이 뛰어난 꽈준빈의 진행 능력과 다양한 현지인들과의 만남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뉴미디어 시사교양 부문은 MBC 경남의 <첫문장> 프로그램이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널리 알려진 작가 15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을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인기 작가들이라 하더라도 첫 문장을 쓰는 이유와 맥락이 다르고 그만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소재 자체가 특이하고 흔히 볼 수 없는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참신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그림 6] 뉴스보도 부문 수상작 <일손전쟁, 우리는 매력적입니까?>

지역뉴스보도 부문 수상작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최초 공동 검증>



출처 : SBS, 부산MBC

뉴스보도 부문 작품상은 SBS <일손 전쟁, 우리는 매력적입니까?>가 수상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프로그램이다. 인구 감소로 이주노동자 없이는 한국이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절박감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 역시 적나라하게 밝힌다. 뉴스 제작진들은 국내와 해외 현지 취재를 통해 인구절벽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갖는 의미와 관련 정책들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잘 다룬 수작이다.

지역뉴스보도 부문은 부산MBC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최초 공동 검증> 연속보도가 수상했다. 6개 언론사와 3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검찰 예산 시스템을 검증한 자료들에 근거해 연속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접근하기 어

렵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직접 검증하고 문제점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7] 시사보도 TV 부문 수상작 <추적 60분 : 학교 밖 르포 – 소년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
시사보도 라디오 부문 수상작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북한 해킹 사태>
지역시사보도 부문 수상작 <더 보다 : 84인의 기록, 재난은 끝나지 않았다>



출처 : KBS, CBS, KBS전주방송총국

시사보도 TV 부문은 KBS <추적 60분 : 학교 밖 르포 - 소년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 가 수상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역 주위 유흥가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삶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취재한 작품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불량 청소년의 존재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따뜻한 시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은 절대 그들 혼자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 관련 공동체가 모두 관심을 두고 청소년들을 보듬어야 이들이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제시되고 있다.

시사보도 라디오 부문은 CBS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북한 해킹 사태>가 수상했다. 이 보도의 핵심은 북한 경찰총국 산하 해커 그룹이 한국 사법부 전산망과 PC를 해킹했다는

주제이다. CBS는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반응이나 대책 등 다차원적으로 관련 의혹 및 정부 반응을 취재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후속 보도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시사보도 부문은 KBS전주방송총국 <더 보다 : 84인의 기록, 재난은 끝나지 않 았다>가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섬진강 범람 및 수재민,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 수 피해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등 재난경험자의 심리 변화를 학술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학 심리학 연구진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재난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게 된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학술적 방법론을 통해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그림 8] 다큐멘터리 TV 부문 수상작 <EBS 다큐프라임 : 돈의 얼굴>



출처 : EBS

다큐멘터리 TV 부문은 <EBS 다큐프라임 : 돈의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이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돈이라는 인간의 욕망이 집약된 대상물을 두고 다양한 맥락과 시선으로 돈 을 다룬 6부작으로 다큐멘터리다.

[그림 9] 다큐멘터리 라디오 부문 수상작 <2023 제25회 KBS 한민족체험수기>
지역다큐멘터리 라디오 부문 수상작 <여성과 한글 : 내방가사>



출처 : KBS, KBS안동

다큐멘터리 라디오 부문에서는 <2023 제25회 KBS 한민족체험수기>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이, 지역다큐멘터리 라디오 부문은 KBS안동 한글날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여성과 한글 : 내방가사> 5부작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이들 프로그램은 흔하지 않은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지상파방송이 가야 할 공적 가치를 강조한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그림 10] 지역다큐멘터리 TV 부문 수상작 <독도 데이터 전쟁>, <악마의 생선>



출처 : 포항MBC, 경남MBC

지역다큐멘터리 TV 부문은 포항MBC의 <독도 데이터 전쟁>, 그리고 MBC경남의 <악마의 생선>이 수상했다. 포항MBC가 만든 <독도 데이터 전쟁>은 독도 영유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과 분쟁을 가상공간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독특했다. 제작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강조하는 일본의 시도가 적지 않았던 반면에 온라인에서 독도 관련 정보 생산이 부족했던 한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고 있다. 이들은 미래 독도와 관련해 일본과의 분쟁이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간 내 데이터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MBC경남이 수상한 UHD 다큐멘터리 <악마의 생선>은 아귀라는 생선이 인기 식재료가 된 이유와 맥락을 설명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못생긴 생선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아귀가 이제는 세계 각지에서 중요한 식재료가 된 이유를 살펴보고 있어 시청자들의 흥미를 적지 않게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사회공익 TV 부문 수상작
<EBS 다큐프라임 :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출처 : EBS

사회공익 TV 부문은 <EBS 다큐프라임 :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가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죽음이나 늙음에 대한 이해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병원이나 시설, 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죽음이나 늙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고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림 12] 생활정보 TV 부문 수상작 <다큐멘터리K : 책맹인류>, 라디오 부문 수상작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출처 : EBS, cpbc

생활정보 TV 부문은 EBS <다큐멘터리K : 책맹인류> 10부작이 수상했다. 문해력 논쟁과 관련해 현대인들이 왜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책맹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다.

생활정보 라디오 부문은 cpbc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상캐스터였던 오수진 진행자가 진행하는 오전 출근 시간대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정보와 음악 등을 섞어 진행자 개인의 색깔이 잘 묻어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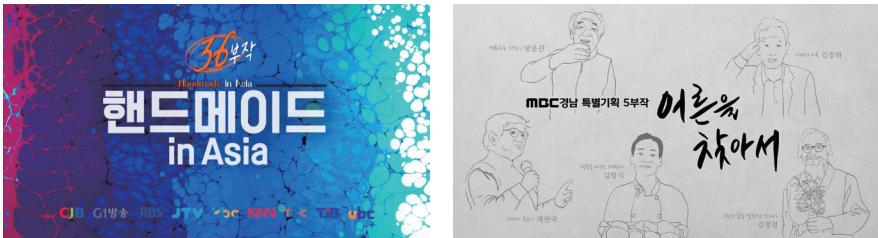
[그림 13] 문화예술교양 부문 수상작 <인간 신세계로부터>



출처 : KBS

문화예술교양 부문은 KBS 공영방송 50주년 대기획 <인간 신세계로부터> 4부작이 수상했다. 미술사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여정을 다양하게 살펴본 프로그램이다. 1부 모나리자, 2부 메두사호의 뗏목, 3부 절규, 4부 우리의 얼굴 등 4부로 구성된 역작이었다.

[그림 14] 지역교양 TV 부문 수상작 <핸드메이드 in Asia>, 라디오 부문 수상작 <어른을 찾아서>



출처 : KNN, MBC경남

지역교양 TV 부문은 KNN 다큐멘터리 <핸드메이드 in Asia>가 수상했다. 전국 9개 지역민영방송사가 공동 제작한 UHD 다큐멘터리 18부작 프로그램이다. 아시아 14개국, 18개의 다양한 핸드메이드 관련 문화를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민영방송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첫 번째 시리즈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지역교양 라디오 부문은 MBC경남 <어른을 찾아서> 5부작이 수상했다.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숨은 어른들을 소개하는 라디오 기획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은 원래 MBC경남이 제작한 화제작 <어른 김장하>를 모티브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에서는 5명의 숨은 어른들이 출연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5] 음악구성 라디오 부문 수상작 <출발 FM과 함께> 6부작 대기획 '협주'
어린이 부문 수상작 <딩동댕 유치원>



출처 : KBS, EBS

음악구성 라디오 부문은 KBS <출발 FM과 함께> 6부작 대기획 ‘협주’가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파격적인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의 시도였다. 저명한 클래식 명연주자들의 연주곡을 부분적으로 믹싱하고 연결해 청취자들로 하여금 이를 듣고 새로움과 놀라움으로 연주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한 것이다.

어린이 부문에서는 EBS <딩동댕 유치원>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딩동댕 유치원>은 1982년부터 방송된 국내 간판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이나 유아 대상 프로그램으로 여전히 의미와 가치가 높다. 유아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딩동댕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림 16] 지역오락 TV 부문 수상작 <하루식당>, 라디오 부문 수상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출처 : KNN, TBN강원

지역오락 TV 부문에서는 KNN의 <하루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단 하루 동안, 그날 진행자가 직접 확보한 식재료로 요리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한다는 참신한 기획으로 구성되었다. 식당 지배인으로 개그맨 지상렬이 출연하며 주방 매니저로 가수 KCM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흥미를 높였던 식당 영업 프로그램이다.

지역오락 라디오 부문은 TBN강원 광복 78주년 특별기획 오디오 뮤지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수상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원작 뮤지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오디오 프로그램으로 각색,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그림 17] 사회공익 라디오 부문 1그룹 수상작 <나는 열여덟 어른입니다>
2그룹 수상작 <2024 대한민국 1교시 : 손잡고 한 발짝 더>



출처 : TBN대구, KBS

사회공익 라디오 부문은 1그룹에 TBN대구 <나는 열여덟 어른입니다>, 2그룹에 KBS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2024 대한민국 1교시 : 손잡고 한 발짝 더>가 수상했다.

[그림 18] 특별상 수상작
<다큐멘터리K :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



출처 : EBS

특별상으로는 EBS <다큐멘터리K :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 10부작이 수상했다. 초저출생 현상이 왜 일어나고 그 의미와 맥락이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프로그램이다. 해외 사례들을 비교적 충실히 다루고 있었다.

3. 수상작들로 살펴보는 지상파방송의 미래

제51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다큐멘터리 장르만큼은 지상파방송이 자랑하는 콘텐츠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이다. 이번에도 대상을 수상한 SBS <고래와 나>를 포함해 지역다큐멘터리 TV 부문에 포항MBC의 <독도 데이터 전쟁>, MBC경남의 <악마의 생선>, 사회공익 TV 부문에 <EBS 다큐프라임 :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생활정보 TV 부문에 EBS <다큐멘터리K : 책맹인류>, 문화예술교양 부문에 KBS <인간 신세계로부터>, 지역교양 TV 부문에 KNN 다큐멘터리 <핸드메이드 in Asia>, 특별상으로는 EBS <다큐멘터리K :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 등이 수상했다.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 중 양질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많았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장르로 다큐멘터리는 앞으로도 지상파방송의 미래를 책임질 한 축이 될 것이다.

둘째, 드라마와 연예 오락 장르에서는 기존 흐름을 반영한 작품과 새로운 시도로 제작된 작품들이 나름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번 제51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드라마 수상작은 MBC <연인>과 SBS <악귀>가 선정되었다. 드라마 <연인>은 병자호란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바탕으로 남녀 사랑을 그린 역사 멜로물이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드라마 공식을 따라간 점이 적지 않다. 반면에 <악귀>는 지상파방송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오컬트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작품이었다.

연예오락 TV 부문에서도 KBS <골든걸스>와 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골든걸스>가 음악 예능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기존의 흐름을 이어간 작품이었다면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2>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세계여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다.

셋째, 프로그램 형식으로도 혁신이나 변형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포항MBC의 <독도 데이터 전쟁>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을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스토리를 이끌고 갔다. 뉴미디어 시사교양 부문 수상작인 MBC경남 <첫문장>은 유명 작가들이 작품을 쓸 때 첫 문장과 연관된 맥락이나 이야기들을 풀어주는 독특한 형식을 개발했다. 음악구성 라디오 부문 수상작인 KBS <출발 FM 과 함께> 6부작 대기획 ‘협주’는 유명 연주가들의 연주 실황 음악을 부분적으로 이어 붙이는 파격적인 실험을 했다.

지난 한 해 지상파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중 대상 1편과 25개 부문 30편의 작품들이 제51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미래를 보여주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이다. 이번 수상작을 살펴보면, 글로벌 OTT와 온라인 콘텐츠 유통 창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품질이 굳건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1회 한국방송대상 부문별 작품상을 수상한 프로그램 제작진들께 축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혁신과 완결성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제51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자 · 작 리스트

방송을 켜다, 세상을 켜다

1. 대상 :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

2. 작품상

부문	출품사	출품사
뉴스보도	SBS	'일손전쟁, 우리는 매력적입니까?' 기획보도
지역뉴스보도	부산MBC	검찰 예산 대체부 시즌1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최초 공동검증' 연속보도
시사보도TV	KBS	〈추적60분〉 '학교 밖 브로포 - 소년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
시사보도R	CBS	'초유의 사법부 전신망 북한 해킹 사태'
지역시사보도	KBS전주방송총국	〈더 보다〉 '84인의 기록, 재난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공익TV	EBS	〈디큐프리임〉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사회공익R	TBN대구교통방송	〈나는 열여덟 어른입니다〉
	KBS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2024 대한민국 1교시 - 손잡고 한 빌짝 더〉
생활정보TV	EBS	〈다큐멘터리K〉 '책맥인류'
생활정보R	cpbc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문화예술교양	KBS	공영방송 50주년 대기획 〈인간 신세계로부터〉 4부작
지역교양TV	KNN	9개 민영방송 공동제작 4K 다큐멘터리 〈핸드메이드 in Asia〉
지역교양R	MBC경남	〈어른을 찾아서〉 5부작
음악구성R	KBS	〈출발 FM과 함께〉 6부작 대기획 '협주'
어린이	EBS	〈딩동댕 유치원〉
뉴미디어	예능	〈곽준빈의 세계기사식당〉
	시사 교양	MBC경남
다큐멘터리TV	EBS	〈디큐프리임〉 '돈의 얼굴'
	KBS	〈2023 제25회 KBS 한민족체험수기〉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지역다큐멘터리TV	포항MBC	〈독도 데이터전쟁〉 2부작
	MBC경남	〈악마의 생선〉
지역다큐멘터리R	KBS안동방송국	한글날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여성과 한글 : 내방기사〉 5부작
드라마TV	MBC	〈연인〉 *공동수상
	SBS	〈악귀〉 *공동수상

연예오락TV	KBS MBC	〈골든걸스〉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2〉
연예오락R	MBC	〈4시엔 윤도현입니다〉 '애들이 놀자'
지역오락TV	KNN	〈하루식당〉
지역오락R	TBN강원교통방송	광복78주년 특별기획 오디오 뮤지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특별상	EBS	〈다큐멘터리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작

3. 개인상

부문	추천사	수상자	주요 작품
공로	KBS	김형운	〈환경스페셜〉, 〈영하〉 등 25년간 KBS의 대표 다큐멘터리 제작
지역방송진흥	KBC	신종문	대표적 지역 프로그램 제작 및 세계화 기여
보도기자	MBC	차주혁	〈뉴스데스크〉 '간설노조원 분신 검증' 외
프로듀서	MBC	김지우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2, 3〉
영상촬영	MBC	김화영	〈연인〉
미술	EBS	이희신	〈다큐프라임〉 '돈의 얼굴' 외
영상그래픽	SBS A&T	성형주	〈재벌X형사〉
음악	KBS	강진호	〈고려거란전쟁〉 외
조명	MBC	백광민	〈소년판타지〉, 〈가요대제전〉 외
아나운서	MBC	김대호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외
작가	SBS	김은희	〈악귀〉
진행자	EBS	신계숙	〈신계숙의 맷타사이클 다이어리 시즌4〉
성우	SBS	안경진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기술	부산MBC	문상환	'사용자 선택형 UHD 입체 미디어 서비스' 수행 외
최우수연기자	SBS	김태리	〈악귀〉
최우수예능인	EBS	곽준빈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최우수가수	MBC	스트레이키즈	〈소! 음악중심〉, 〈MBC 가요대제전〉
방송경력	KBS	민지홍	〈골든걸스〉 사업관리 외